‘사마리아’ 곽지민 10월의 신부 된다



본지 단독

연기자 곽지민(31·사진)이 ‘10월의 신부’가 된다.

곽지민은 10월 중순 서울 인근의 한 웨딩홀에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가족과 지인들만 초대하는 비공개 예식을 올릴 계획이다. 예비신랑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로, 여느 친구들처럼 편하게 지내오다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에까지 골인하게 됐다. 오랜 시간 다져온 우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 등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된 원동력이다.

곽지민은 이날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오다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된 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까지 최대한 조용히 준비하려고 했다. 결혼 후에도 영화 등 각종 작품에 출연해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 웨딩 촬영을 마쳤고,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손수 챙기고 있다. 한 연예관계자는 22일 “곽지민이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다. 예비신랑과 친구처럼 지내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민은 2003년 영화 ‘여고괴담3-여우계단’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고, 2004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사마리아’를 통해 선보인 파격적인 연기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덕분에 그해 열린 제5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여우상을 받았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외모와 귀여운 매력 등으로 각종 영화와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시리즈 다세포 소녀’ ‘메리대구 공방전’ ‘아이엠 샘’ ‘구암 허준’ ‘빛나는 로맨스’ 등에 출연하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지난해 말 슈퍼주니어 출신 김기범과 주연한 웹드라마 ‘발칙하게 로맨스’ 촬영을 마치고 현재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우수소녀’ 성소



‘헬로비너스’ 나라



‘다이아’ 정채연

설.혜.수 다음 대세는 성.나.정

설현·혜리·수지 女아이돌 3강 구도에 성소·나라·정채연 연예·광고계 상한가

‘설혜수 다음엔 성나정!?’

현재 연예계를 이끄는 여성 아이돌 스타로 설현·혜리·수지, 이른바 ‘설혜수’가 꼽힌다. 여러 세대에 걸쳐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들은 광고업계부터 드라마, 영화계의 섭외 1순위로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몸값 높은 스타들이다.

이들에 이어 요즘 방송·연예계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걸그룹 멤버 3인이 있다. 성소, 나라 그리고 정채연으로, 이들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성나정’이다. 마침 2013년 인기리에 방송됐던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여자주인공 이름이 성나정이어서 더 눈길을 끈다.

2월 데뷔한 우주소녀의 중국인 멤버 성소는 귀여운 얼굴과 말투, 그에 반전을 이루는 ‘베이글’(얼굴은 베이비, 몸매는 글래머) 외모로 추석 연휴 이후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그를 향한 광고계와 방송가의 러브콜이 뜨겁다. 성소 덕분에 우주소녀의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행사업계에서도 이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진작부터 뜨거웠던 중국 엔터테인먼트업계의 출연 요청은 더욱 많아졌다.

우주소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추석 이후 광고계 반응이 즉각적이다”면서 “성소는 현재 팀 멤버들과 통신사, 화장품 모델로 활동 중이며 조만간 단독 광고모델 소식을 계속 전할 것 같다”고 말했다.

170cm가 조금 넘는 신장의 헬로비너스 나라는 전지현에 비견되는 뛰어난 몸매를 앞세워 광고시장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6월 SK텔레콤 광고를 통해 늘씬한 몸매를 드러낸 이후 현재까지 화장품, 청바지, 골프웨어, 맥주, 통신사, 게임 등 8개 브랜드와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CF퀸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방송가에서도 러브콜이 계속돼 SBS ‘정글의 법칙’,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채널CGV ‘나도 영화감독이다’ 등에 잇따라 출연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뮤직 관계자는 “현재 광고계와 예능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가장 뜨겁다. 머지 않아 연기자로도 데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아 정채연은 심은하, 이영애와 같은 동양적인 단아한 외모가 매력이다. 올해 초 방송된 엠넷 ‘프로듀스101’에 출연, 프로젝트 걸그룹 I.O.I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은 후 현재 방송 중인 tvN 드라마 ‘혼술남녀’를 통해 연기자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23일부터 방송되는 tvN 예능프로그램 ‘먹고 자고 먹고’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앞서 21일엔 주얼리 브랜드 ‘라뮤사’ 모델로 발탁되면서 CF계에서도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채연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깨끗하면서도 청순한 이미지로 특히 광고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현재 다이아로 활동 중이고, 10월엔 또 I.O.I로 나설 예정이어서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중국서 인지도 쌓은 윤아·임시완 ‘멜로사극’ 호흡

내년 3월 MBC ‘왕은 사랑한다’ 주연 사전제작으로 한·중 동시 방송 예정



윤아(왼쪽)와 임시완이 중국 내 인지도에 힘입어 내년 방송 예정인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에서 호흡을 맞춘다. 스포츠동아DB

윤아와 임시완의 첫 연기 호흡이 성사된 배경에 중국이 있었다.

윤아와 임시완은 내년 3월 MBC가 방송을 논의 중인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연출 김상협)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로맨스 팩션 사극 장르를 표방하는 드라마는 중국의 최대 IT기업 텐센트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아 12월부터 본격적인 촬영에 나선다. 100% 사전제작이다.

텐센트의 투자가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중국 한류에 대한 반발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사된 건 단연 윤아와 임시완의 존재감이다.

여성그룹 소녀시대의 멤버로서 중국에서 활약 중인 윤아는 올해 연기자로서도 제 몫을 해냈다. 4월 후난위성TV가 방송한 ‘무신조자룡’을 통해 첫 중국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섰던 그는 2%대 시청률을 이끄는 주축 역할을 했다. 중국에서는 1%만 넘어도 인기프로그램으로도 평가받는다. 꾸준히 1%대를 유지하며 현지 안방극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연기자로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임시완을 향한 현지 반응은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중국 시청자는 ‘해를 품은 달’(2012)에서 짧은 분량이지만 강한 인상을 남긴 그에게 처음 관심을 갖고, ‘미생’(2014) 이후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다. 텐센트 측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 공개할 예정인 웹드라마 ‘검래적묘남(주워온 고양이 남자)’ 속 임시완의 모습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윤아와 임시완은 격정적인 멜로 사극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임시완은 고려시대 최초의 ‘혼혈왕’ 왕원, 윤아는 고려 최고의 부를 지닌 집안의 외동딸 왕산 역을 맡는다. 드라마는 권력과 총명함 등을 모두 지닌 왕원이 왕산의 사랑만은 얻지 못해 절망하고 나약해지는 모습을 그린다.

한 방송관계자는 “진부한 남녀주인공의 해피엔딩이 아닌 설정에 관심이 높다”면서 “사전제작으로 중국 동시 방송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개콘, 새 코너 효과 톡톡

3주 연속 10% 시청률 ‘부활 모드’

KBS 2TV ‘개그콘서트’가 잇단 새 코너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개그콘서트’는 이달 들어 3주 연속 10%대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했다. 7월31일부터 8월28일까지 5주간 한 차례 10%를 나타낸 것 외에는 계속 한 자리 수 시청률에 머물렀던 점에 비춰보면 고무적인 결과다.

이는 최근 새롭게 선보인 코너들이 시청자의 시선을 끄는 데 성공한 덕분이다. ‘개그콘서트’는 지난달 ‘꽃샘주의’ ‘징스타 ent’ ‘무.리.텔’ ‘비호행’ ‘징크스’ 등 코너를 신설한 데 이어 이달에도 ‘세.젤.예’ ‘나가거든’ 등 대대적으로 코너를 재정비했다.

제작진은 ‘개그콘서트’가 이처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을 내부의 분위기에서 찾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개그맨들이 휴가로 충분히 체력을 보충한 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며 “분위기가 좀 더 활기 넘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진은 경쟁프로그램과 방송시간대를 고려해 코너를 편성하고 있다. 폐지되는 코너를 선정할 경우에도 코너별 시청률보다는 방송시간대·재미 등을 함께 염두에 두는 등 상당히 공을 들인다. 제작진은 “각기 스토리가 다른 코너를 ‘지그재그식’으로 구성해 다채로운 시청의 재미를 주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GD’는 우리가 지킨다 악플러 처벌 나선 팬들

참다못해 팬들이 직접 나섰다. 지드래곤에 대한 악플이나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누리꾼을 고발하기로 했다. 스포츠동아DB

‘권지용 서포터즈’ 별도 소송 준비 국내외 팬들 대상 소송비 모금도

지드래곤의 팬들이 악플러 처벌을 위해 직접 소송에 나선다.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의 팬클럽 ‘권지용 서포터즈’ 측은 지드래곤을 향한 악의적 댓글 작성자, 루머 유포자 등 악질 누리꾼을 대상으로 검찰에 ‘제3자 고발’하는 형식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연예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며 가요계에서도 ‘권지용 서포터즈’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악성 댓글 등에 관한 소송은 대체로 소속사나 연예인 당사자가 진행하고, 팬들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전달하는 식의 ‘협조’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지드래곤 팬들은 소속사나 당사자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욱이 소송을 중도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악플러 처벌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굳은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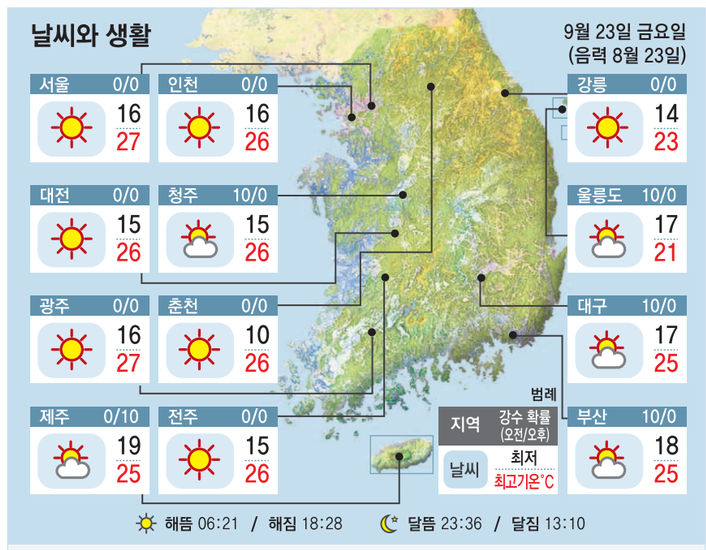
지드래곤 팬들은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일부터 국내외 팬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시작했다. 팬들은 작게는 수천원부터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후 인증사진을 여러 팬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다. ‘커피 값을 아껴 악플러 퇴치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글도 이어졌다.

이들은 악플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년간 수집해왔으며, 최근 지드래곤의 SNS 비공개 계정이 해킹 당한 사건을 계기로 실행에 옮기게 됐다. 권지용 서포터즈 측은 20일 자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다년간 지드래곤을 향한 악의적인 여론 형성과 사생활 관련 루머, 근거 없는 비난, 심지어 최근의 해킹 사건까지 상황을 두고 보았을 때, 더 이상의 무대응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나 당사자의 고소 여부를 떠나 제3자 고발을 중간에 중단할 생각은 없으며 몇 차에 걸쳐서라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권지용 서포터즈’라는 한 단체가 아닌 ‘지드래곤 팬’의 이름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들은 평소 지드래곤의 생일 등 기념일에 맞춰 불우이웃을 돕는 등 팬덤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쳤다. 이번엔 악플러를 직접 응징하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향후 연예계 팬덤 문화에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지드래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도 21일 지드래곤의 비공개 개인 SNS 계정이 해킹을 당한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원겸 기자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승욱
인쇄 동아일보사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2
스포츠1부 02 2020 1041
스포츠2부 02 2020 1059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산업경제부 02 2020 1060
사진부 02 2020 1069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